



즉시 배포용: 2021년 4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22 회계연도 예산의 일환으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망 수당에 대한 주 세금 감면 발표

가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주 소득세에서 면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2 회계연도 제정 예산(FY 2022 Enacted Budget)의 일환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가족 사망 수당 프로그램을 통해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직원 가족에게 지급된 직접 지불은 주 소득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팬데믹 중 가장 어두운 시절에 집에 머물렀지만,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직원들은 자신의 건강을 걸고 일하러 온 덕분에 뉴욕시 전역의 필수 노동자들이 목적지에 도달하여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웅적인 남성과 여성들은 가족들과 자신의 건강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웅들의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가족 사망 수당 프로그램을 통해 이 가족들이 받은 사망 수당은 뉴욕주 소득세에서 면제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의 전례 없는 50만 달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가족 사망 수당 프로그램은 2020년 4월에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직원 가족에게 승인된 직접 지불금이 6,2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